푹 빠져 쏟은 열정, 작품이 되다… '덕후들' 한자리에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서 '덕후展'

3.2m 대형건담 비롯 120점 전시
송정근·이원희 작가 등 8명 참여
"덕후들 통해 새 예술작 탄생할 것"

국립과천과학관 관·단장, 8명의 작가 및 관계자들이 '덕후전' 개막식에서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송정근 작가가 자신이 제작한 세종대왕함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성동 건프라연구소 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바야흐로 '덕후(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는 사람으로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의 시대'. 목범선, 건프라 제작, 해전 디오라마 등 특정 분야에 꽂힌 덕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5일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다.

배재웅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이날 열린 '덕후전' 개막식에서 "과학이 관찰과 탐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만의 영역에서 특별한 장르를 만들어나가는 작가를 섭외했다"며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과학관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총 120여점의 작품이 있는 이번 전시에는 3.2m 크기의 대형건담을 비롯 건담 프라모델과 한정판 건담 40여점이 전시된다. 해전, 나무 함선 등 20여개의 디오라마(Diorama·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해 구성한 장면)와 종이로 만든 작품 50점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발로 뛰며 추진한 김주영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팀 주무관은 "과학도 사실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의식으로 발전했다"며 "상상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과학 발전의 강력한 토양이 된 것처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덕후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각 분야별로 이 분야면 '이 사람'이 떠오르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년 간 나무를 깎아 열차, 함선 등을 만들어 온 송정근 작가부터 전함과 해전의 스토리를 디오라마로 구현한 이원희 작가, 학 모양 종이로 종이블록 만들기를 창안한 장준호 작가 등 총 8명의 작가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분야는 달라도 덕후가 된 계기와 과정은 비슷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몰래 숨어서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몰래 쌓은 내공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김 주무관은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주변을 둘러볼 여력 없이 바빴지만 이제 새 콘텐츠를 만들 여유가 생겼다"며 "이제 시작이지만 덕후들을 통해 새 콘텐츠, 예술작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덕후전에 참가한 작가들의 일문일답이다.

송정근 작가 (목범선 제작)

▲지난 20년 동안 나무를 깎아 열차, 함선 등을 만들어 덕후전에 목함선 10여척을 선보였다. 처음 목함선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

-40대 중반이 되니 일에만 매달려 지내는 게 아쉬워 취미를 찾다가 해군에 다닐 때 만들던 모형이 생각나 만들게 됐다.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자료 수집도 직접 했다.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 직접 도면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목범선에 꽂히게 된 계기가 있나.

-배 중에서도 전함을 좋아하는데, 전함이 함포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플랫폼으로 모양이 가장 복잡하다. 지나간 것에 대한 향수라고 할 수 있다. 디테일을 표현하기 힘든 소재지만 충해가 거의 없는 은행나무를 사용해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 1년에 1작품을 만들어 지루함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있다면.

-디테일한 모양을 자료나 도면을 보고 따로 만들어서 합치하는 작업이 좋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고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 현재 부석사 무량수전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성동 건프라연구소 소장 (건담 프라모델)

▲유튜브 영상 구독자가 4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몰릴 건담의 매력을 꼽는다면.

-건담은 손으로 작업해도 만족감을 느끼는 제 2의 창작물이 된다. 그야말로 투자한 만큼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다. 지금은 장난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음지에서 양지 문화로 가는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건담을 만드는 공방인 건프라연구소에 찾는 분들도 많은가.

-건프라연구소에서는 건담 제작을 가르치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한다. 배우러 공방을 찾는 분들도 10대부터 50대까지 많다. 얼마 전에는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도 있다.

▲건담 '덕후'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멋있는 작품에는 그만큼 시간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을, 1년을 투자하기도 한다. 하나라도 귀찮을 일을 해야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는 점은 아쉽다. 일회성처럼 쉽게 얻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지양하고 진득하게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비강남권 학교에 4년간 1220억 집중투자

서울시, 52개 대학과 일대일 매칭
은퇴 저명인사 명예교사단 등 운영

서울시가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5일 '2019 비강남권 학교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4월부터 '대학-교교 연계 교육 강좌'를 개설한다. 저명한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교실에서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소재 52개 대학과 비강남권 고등학교를 일대일로 매칭한다. 우수 교수진이 빅데이터, 인문논술, 로봇제작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종별 전문가와 은퇴한 저명인사 111명을 명예교사단으로 운영해 고등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진로·진학 상담에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 오준 전 UN 대사를 포함 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73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1220억원을 비강남권 학교에 집중 투자한다.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 수준도 끌어올린다.

노원구 소재 경기기계 공업고등학교에 오는 1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드론교육원이 문을 연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코딩, 예술교육, 과학기술 관련 시설도 비강남권 60개교에 확충한다.

이와 함께 비 강남지역에 부족한 교내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 학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6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비강남권 학교 29개교에 실내체육관을 만든다. 도서관·북카페 등이 있는 다목적시설은 2022년까지 5개 학교에 건립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우수한 대학의 수준 높은 강사진, 사회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량을 비 강남권 교육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수십 년간 누적돼 온 강남북 불균형의 중심에는 교육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비 강남지역에 대한 균형투자지원전략을 통해 강북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봄소식 전하는 청개구리 경칩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 곤충자원센터에서 청개구리 한 마리가 호접란 위에 올라가 있다. /연합뉴스

서울 10개 자치구서 '건강돌봄' 서비스

서울시는 보건소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상담·재활 등을 지원하는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를 10개 자치구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소 건강돌봄팀은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돌봄팀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방문해 건강 평가, 질환 교육, 영양·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동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재돌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건강돌봄은 지난해 성동·노원·은평·관악 4개구에서 시범운영됐다. 시는 해당 서비스를 올해 10개구로 확대,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돌봄 허브인 보건지소는 올해 5개소를 확충하고 2022년까지 80곳으로 늘린다. 보건지소는 지난해 기준 28개소를 확충·지원했다. 시는 인구 50만 미만인 자치구는 3개소, 50만 이상인 자치구는 4개소 규모로 균등하게 보건지소를 설치해 건강돌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돌봄은 찾동,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주민을 돌봄팀이 찾아가 의학적 평가, 건강관리계획 수립, 영양·재활 서비스, 지속관리를 돕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시립병원은 퇴원환자의 요구도 평가,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나가정으로 복귀하는 환자 중 지속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건강돌봄팀에 의뢰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병원-보건소간 연계체계를 활성화, 신속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착수

용역 수행업체 모집

서울시가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2~26일 15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서울을 5개 권역, 116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구중심 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중심지 육성계획,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월계, 홍제, 낙성대, 노량진, 대림 등이다. 시는 지역의 잠재력, 대규모 유휴지, 자치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서울시 전략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년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문제 해소, 지역의 자족성 강화 등을 위한 중심지를 육성하겠다"며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등을 통해 서울 전역의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